



예배(쌀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열기



하루 다섯번, 모스크의 미나렛에서는 예배를 위한 부름이 울려 퍼집니다. 갤럭시 어플의 진동으로도 울리는 이 부름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유일성과 무함마드의 사도직을 확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오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오, 예배 드리러 오시오

성공하러 오시오, 성공하러 오시오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도직 초기에 메카의 무슬림들은 소수였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보잘 것 없었고 모든 종류의 멸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배를 위한 부름은 없었습니다.

●

믿는 자들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었고 자신들의 허약함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은 경배함에 있어 굳건하였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의 박해로 고통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예배를 통해 이해하였습니다.

몇년이 흐르고 무슬림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메디나의 무슬림은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무함마드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신 지 이년째 되던 해에 예배를 위한 부름이 도입되었습니다.

성공하러 오시오. 이 문장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들에게, 현세의 이득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님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들 삶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과 경배시의 진정성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예배를 위한 부름은 동일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부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영혼의 성공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떠올리는 데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노라” (꾸란 13:28)

예배, 즉 '살라'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실천 기둥 중의 하나입니다. 이 다섯 번 예배는 낮부터 밤 시간까지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전세계 무슬림들은 세정(우두)를 실시한 후 메카의 카으바 방향으로 향하여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루 다섯번의 의무 예배 이외에도 자발 예배가 있어 특정 상황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축제날/이드 날에는 합동으로 자발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의무 희사금을 내며 허리 숙여 절하는 하는 자들과 함께 허리 숙여 절하라" (2:43)

꾸란의 여러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꾸준하고 성실히 예배(와 선행)에 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이슬람에서의 예배는 마치 신체에서의 머리와 같노라”

우리의 육체가 행동을 조절하는 이성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듯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적 건강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그들이 나를 경배토록 하기 위함이라” (51:56)

우리 존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의무로 지정된, 매우 신성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히 연결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꾸준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 속의 평화를 느끼게 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여러 효용

하루 다섯 번 예배에는 셀 수 없는 많은 효용이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리가 그분의 종복임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일상의 노고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구에 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배의 효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배는 죄가 용서받는 수단입니다 :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그분의 교우들에게 물었습니다 : “만약 그대들 집 대문 앞에 냇물이 흐르고 있어 매일 다섯번 먹을 감는다면, 그대들 몸에 더러운 것이 남아 있겠는가?” 그들이 말하길 “어떤 더러운 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다섯 번 예배가 그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로써 죄를 씻어주시노라”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예언자께서는 어느 겨울날에 밖으로 나가셨고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뭇가지를 잡자 더 많은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그분의 교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무슬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

예배는 앞으로 지을 죄를 막아줍니다.

“그대에게 계시되는 성서를 낭송하고 꾸준히 예배를 드리라. 실로 예배는 추악한 행위나 비난받을 행위를 예방하노라. 실로 하나님의 떠올림은 더 위대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하는 일을 알고 계시노라” (29:45)

예배는 여러분을 다잡아주고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로 인간은 빈약하게 창조되었노라. 그에게 나쁜 것이 스치면 크게 근심하고 그에게 좋은 것이 스치면 인색하더라.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예외라. 그들은 실로 그들의 예배에 있어 부지런한 자들이며...그들은 천국에 있을 명예로운 자들이라” (70:19-35)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복이 그의 주님과 가장 가까울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려 절할 때라”

예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부복하라. 무슬림이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그의 위치를 높여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노라” 다른 전승에 따르면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예배이며, 예배를 여는 열쇠는 세정이라”

예배를 더 잘 드리는 법

빡빡한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와 가족과 스마트폰로부터 떨어져서 예배에 집중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예언자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공부하시고 그분을 따라하세요. 사도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언자의 예배 방식 그대로를 따른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줄 것입니다.
2. 최소한 여러분이 낭송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세요. 예배 동작을 취하면서 낭송하는 꾸란 구절과 말씀하시는 특정 문구의 번역을 읽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에 쓰이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예배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리 계획하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세요. 직장 상사나 선생님께 말씀드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구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매일같이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일상에 맞춰 예배를 계획하지 마시고, 반대로 예배 시간에 맞추어 일상의 활동을 계획하세요.

4. 예배 전에 주의를 흐트리는 것은 그만두시고, 숨을 고르고 의도를 새롭게 하시며 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전화기는 무음으로 하시고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세요.

5.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세요.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예배 기회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배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용서와 자비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이 고별 예배인 것처럼 드리라. 말하고 나서 용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말은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얻기 위한 욕망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준히 예배드리
는 사람들 중의 하나로 두어주시길
기도합니다.**